

'25. 8. 15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테

- 韓, 스테이블 코인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규제 체계 정비 中
 - 8.7 언론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화에 대해 불법 금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금세탁방지 규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FIU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의 권고사항에 공감하며 12월까지 체계 연구 추진
- 韓, 주한미군 기지 에어쇼 무단출입 後 불법 촬영 대만인 징역형 집행
 - 8.7 언론은 수원지방법원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'2025 오산 에어쇼'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後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하다 구속된 대만인 2명에게 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※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번 행사에서 美軍은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고 부언
- 韓, 국내 은신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체포
 - 8.9 언론은 경기남부경찰청이 '20년부터 UN 지정 테러단체인 '라슈카르 에 타이바(LeT)' 조직원으로 활동한 A씨(파키스탄 국적, 40대)를 이태원에서 체포하였다고 보도
 - ※ A씨는 '23년 12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비자 신청서로 불법 입국, 체포 後 국내 공범 여부와 함께 LeT로 활동 자금 송금 여부 등을 조사 中
- 해수부, 아시아 해역 해적사건 급증으로 우리선박 피해 당부
 - 8.10 해수부가 발표한 '25년 상반기 쏠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해적사건이 90건 발생했고 특히 아시아 해역에서 70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, 국내 선박에 최신 정보 확인과 경계 강화 당부
 - ※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상강도 행위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(13건→57건)한 것이 아시아 해역 해적사건의 상승 원인이라고 부언

미 주

○ 美, 콘서트로 카르텔 자금 세탁한 멕시코 래퍼 제재

- 8.7 언론은 美 재무부가 멕시코 국적 래퍼 「에르난데스 메드라노」의 콘서트와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50%가 마약 카르텔로 직접 흘러간다고 하며 同人을 마약 카르텔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보도
↳ 자산 동결, 금융 등 거래 행위 금지·차단
↳ Cartel Del Noreste
- ※ CDN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정하는 '외국 테러 단체(FTO)'에도 올라 있으며 美 당국은 CDN '2인자'를 비롯한 고위급 구성원 3명도 함께 제재

○ 美, 파키스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응 논의 및 공동성명 발표

- 8.13 언론은 美와 파키스탄 정부가 BLA, ISIS-K, 파키스탄탈레반운동 등의 주요 테러 위협 세력에 대한 억제 목적의 테러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, 추후 테러 집단으로 등록하여 금융경제 제재를 예고했다고 보도
- ※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, 관세 협상 등 요인으로 인도와 갈등을 맺고 있는 동안 인도의 양숙인 파키스탄이 외교로 지속 성장하는 절차 중의 일부 행위로 분석

중 동

○ 이스라엘군, 구호단체 위장한 테러범 5명 사살

- 8.13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국제 구호 단체로 위장한 무장 테러범을 항공기로 공습하여 5명을 사살하였으며, 인도적 노력을 악용하는 하마스 등 테러조직들을 비난했다고 보도

아프리카

○ 모잠비크, ISIS 연계 무장단체 공격으로 지역 주민피해 급증

- 8.13 언론은 모잠비크 북부지역에서 ISIS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 「안사르 알순나」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최근 2주간 6만명이 피난길에 올랐으며, 어린이들이 납치되는 등 지역 주민들 피해가 크다고 보도
- ※ 중동, 나이지리아,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이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, 그간 모잠비크의 상황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고 부언

역사속 테러사건

「테일러 스위프트」 콘서트 테러 미수 사건

- '24.8.7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(8.8~10)에서 수만명을 테러할 계획을 세운 범인들이 체포되면서, 콘서트가 전면 취소되는 사건 발생
 - 오스트리아 경찰은 美 중앙정보국(CIA)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오스트리아 국적 19세, 17세 2명과 이라크 시민 18세 1명을 체포
 - 조사 결과 체포된 범인들은 공연장 밖에 모인 운집한 팬들을 표적으로 한 차량 돌진 테러를 계획했으며 칼 공격과 폭발물 테러도 계획
 - ※ 핵심 용의자인 19세 남성은 ISIS-K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으며 ISIS 선전 웹사이트에서 IED 취급 설명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조사
- 오스트리아 「프란츠 루프」 내무부 공공안전국장은 기자회견에서 '용의자들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급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'고 발표
- 美 [CTC](#)는 [同 사건을](#) '이슬람 국가(ISIS)에 영향을 받은 십 대 지하디스트들이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 행사를 표적으로 최대 사상자를 발생시키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'고 분석

테러 상식

< 콘서트 등 대규모 공공 모임 테러 사례 >

- '15. 11. 13. ISIS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극장을 포함한 파리 시내 곳곳을 총격하는 테러를 일으켜 약 130명 사망
- '17. 5. 22.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美 가수 「아리아나 그란데」의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23명이 사망, ISIS가 테러의 배후를 주장
- '17. 10. 1. 美 라스베이거스 '루트 91 하베스트 페스티벌'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, 약 60명이 사망. ISIS가 테러의 배후를 주장했으나 연관성은 美 확인
- '24. 3. 22.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 공연장에서 무장 괴한이 난입,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공연장에 불을 질러 149명이 사망. ISIS-K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